

Beeinflusste Reformation von Martin Luthers in Korea (Süd) und
deren weiterwirken in die Gegenwart
-Mit Bezug auf koreanische Lutherskirche und Lutherslieder ab
1882 bis heutigen Zeit-

한구석 밝힌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한국에 끼친 영향과 계속되는 개혁
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 루터교와 1882년부터 현재까지의 루터 리더를 중심으로-

김 철 룬

(안양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I. 序 論

II. 本 論

1. 한국에서의 루터교
2. 민족주의 운동과 루터의 저항정신
- 삼일운동 -
3. 루터의 개혁과 동학농민운동
4. 루터의 Lieder
5. 루터교 주일공동예배

III. 結 論

I. 序 論

485년 전에 Martin Luther 는 Wittenbergkirche(비텐 베르크 교회) 에 ‘속죄권의 효력을 밝히는 논의’ 라는 제목의 95개 조항을 항의 (Protest) 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였다. 루터는 바울 사도의 서신인 ‘로마서’ 를 읽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라는 성서 구절을 통해 새 출발을 하고 있었다. 그가 수도원 예배당에서 한 확신에 찬 라틴어 설교는 언제나 초만원을 이루었고, 대학에서의 성서 강의는 학생들에게 감명을 주었으며, 비텐베르크 시 교회에서의 설교는 모국어인 독일어로 했기 때문에 놀라운 감동을 주었다.

한편 루터는 카톨릭 교회가 제정한 라틴어 성서보다는 성서를 독일 국민들에게 쉽게 읽고 이해시키기 위해 성서 번역에 착수하여 1534년에 성서 번역을 마치고 있다. 루터가 이룬 업적은 종교 개혁뿐 아니라 교회음악, 신학 사상 등 많은 곳에서 영향을 끼쳤다.

선교 120년여의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먼저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장로교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아니라 루터 교단 출신의 귀츨라프 (Karl Friedrich August Gützlaff, 1803~1851) 목사라는 사실은 한국 기독교사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가 한국에 머문 기간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으나.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 의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한국의 기독교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불행하게도 교회의 수나 기독교인에 반해 그들이 표방하는 윤리만큼 도덕적으로 성숙해 있지 않으며 오히려 비기독교인들에게 더 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그것은 일제치하에서의 기독교 교계가 행했던 일부 친일행적 및 독재 정권 하에서의 굴종과도 같은 근대의 암울했던 역사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더 큰 원인은 진정한 복음을 통한 신앙의 부재와 형식적 믿음의 팽배, 세속적 가치들과의 교묘한 결합 등으로 인해 카톨릭의 부패를 비판하고 진정한 기독교자를 부르짖었던 루터의 순수한 정신이 많이 퇴색하고 사라지고 있는데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의 기독교적 영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기독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요 한국 사회의 전체적 문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적당히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회적 부와 명예를 버리고 참 신앙을 부르짖으며 카톨릭의 부패와 위선을 고발함으로써 종교를 개혁했던 루터를 통해 한국 일제 시대에 일제의 압제에 굽히지 않고 그 당시 조직화된 교회의 비복음화를 비판하며 루터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외친다.

루터의 사상과 기독교적 신앙과 교회라는 측면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중요

한 믿음의 뿌리를 알아보고, 현재 한국 사회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개혁 운동에 관해 고찰키로 한다.

II. 本 論

1. 한국에서의 루터교

개신교의 장자라면 분명히 우리는 루터교회를 말할수 있다. 왜냐하면 루터교는 종교 개혁의 정신에 의해 설립된 교회로서 중세 교회가 성서적 신앙에서 멀어져 있을 때 선두에 선 교회이기 때문이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95개 조항을 작성하여 속죄권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1521년 4월 17일 보름스 국회에 출두해 자신의 신념을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신학적 당당함은 그가 생각하고 탐구했던 그의 신학적 사상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관의 올바른 관계와 올바른 신앙,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진정한 구원의 길로의 첫 안내였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시하는 태도로 복음주의적 복음을 나타내주는데, 즉 교황주의의 교회를 반대하고 오직 성서에 나타나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가 이토록 신변을 위협하는 공포 속에서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그의 기본적 신앙사상은 성서를 바탕으로 한 믿음만의 구원, 그리고 만인제사장 설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종교 개혁과 관련된 슬로건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과 “오직 성경만으로”였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성서와 믿음의 강조 그리고 만인제사장 설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제시함과 동시에 카톨릭의 교회와 의식, 그리고 경험의 집단화 속에 예속되었던 중세인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방시킨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루터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 하지 않았다. 단지 그는 교회 안에서 오직 개혁을 하고 순수한 초대 교회의 신앙을 되찾으려 했을 뿐이었다. 로마 교회는 반(反) 종교 개혁 운동을 벌이면서 개혁자들을 비판하는 말로 ‘루터란’이라는 용어를 경멸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는데, 이 단어는 나중에 루터 교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여겨졌다.

루터는 첫째, 믿음만으로 의롭게 됨을 말하고 있다. 루터는 그 당시 카톨릭에서 강조해 왔던 교황에 의한 죄의 사함이라든지 인간의 행위나 의지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일축하고 오직 인간의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 즉 완전한 믿음과 은혜의 관계가 설정됨으로서 그리스도 인으로서의 깊은 기쁨과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구원의 조건이 선행(善行)이 될 수 없음이다. 루터는 자신의 저서 『그리스도 인의 자유』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영혼이 그 생명과 의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롭게 되는 것도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만약 다른 어떤 것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말씀이 필요 없을 것이고 따라서 믿음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¹⁾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 인으로서 힘써야 할 것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님을 천명하고 있음이다.

“로마서 10:10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말하고 있듯이 이 신앙은 오직 내적인 사람 안에서만 지배할 수 있고 또한 신앙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내적인 사람은 결코 어떤 외적인 행위나 활동에 의해 의롭게 되거나 자유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 반면에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마음의 불경건함과 불신만이 그를 죄악 되게 하고 죄의 저주받을 종이 되게 한다. 그런 까닭에 행위에 대한 모든 신뢰를 버리고 더욱더 믿음만을 굳게 하며 또한 믿음을 통하여 행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 가운데서 자라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첫째 가는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²⁾

우리는 믿음으로 인한 성령의 임재 하심이 없이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다.³⁾

‘선행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루터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선행의 속성은 인간의 의지적 행위가 인간을 의롭게 하지도,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한다는 점이다.

“계명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보여 주기는 하지만 이를 행할 힘은 주지 않기 때문이다. 계명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알라고 가르치는 것이 목적인데, 계명을 통하여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을 알게 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절망하게 된다.”⁴⁾

둘째, “오직 성서만으로”를 주장했다. 그가 이렇게 주장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 때문이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

1) 존 딜렌버거, 이형기 번역, 루터 저작선, 2000 P.28

2) 앞의 책 P.99

3) 지원용 옮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컨콜디아사, 2000, P.301

4) 앞의 책 P.305

포되며, 성서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다.

“오직 한가지지만이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의와 자유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그 한가지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말씀인데, 이에 대해 그리스도께서는 요한 복음 11: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요한 복음 8:36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 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4:4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만 있다면 그밖의 다른 모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영혼은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영혼을 위하여 전혀 도움이 없을 확고부동한 사실로 생각하자.”⁵⁾

그는 하나님말씀만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정 그리스도 인을 자유케 한다고 함으로써 그 외의 어느 것도 그것보다 앞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셋째, “크리스찬의 만인 사제주의”를 주장했다.

루터는 당시교황이나 사제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적 권위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동등하게 부여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외 제사장직은 아론과 우리 현대 교회의 인간적인 제사장 직의 것처럼 범복이나 자세의 외적인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영적인 곳을 통하여 그는 보이지 않아도 예배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대도 하시고 거기서 그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시며 또한 제사장이 행해야 할 모든 것을 행하신다.그리스도께서 그의 장자권으로 두 가지 특권을 얻으신 것과 같이 그는 아내가 남편에게 속한 것을 무엇이나 다 소유하는 상술한 결혼의 법칙에 따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분여 하시며 또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분담하신다. 이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이며 왕들이다.”⁶⁾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현전에 담대히 나아와 (히 10:19) 아바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며 또한 제사장들의 외적이고 가견적인 업무에서 행해지고 예시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⁷⁾

루터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따라 불려지는 것을 극구 반대하였으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루터의 종교 개혁은 루터 교회의 모체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출발이기도 했다.

5) 존 딜렌버저, 루터 저작선 P.95

6) 지원용, 마틴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P.310

7) 앞의 책 P.313

“나는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그래서 우리들을 루터 교인이라 부르지 말고 그리스도 인이라 불러 달라고 하였다. 루터가 무엇인가? 내 교리는 확실히 하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에서 자기들을 바울과 혹은 베드로파라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 도대체가 약하고 추한 시체 같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분의 이름을 따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 주시오. 루터교는 온 세상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임을 믿는다. 교회에 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하나의 거룩한 교회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복음이 순수하게 설교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는 성도의 회중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참 일치성을 위해서 복음의 가르침과 성례전의 집행에 대하여 일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인간의 전통, 곧 인간이 만든 의식이나 예식이 어디서나 같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엡4:5,6)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⁸⁾

한국에 루터신교부는 다른 개신교 보다 70년이나 늦게 시작 되어온 작은 교단이지만, 루터 교단은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 감리교 보다 더 큰 교단이다. 루터 교회는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절대 규범으로 믿으며 세계적 보편 신조인 사도신조, 니케야 신조, 아다나시안 신조를 제2의 신행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루터교회는 (Lutheran church) 신약의 기독교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에서 있는 교회이다. 그리고 16세기 Martin Luther (1483~1546) 의 종교개혁에 의해 재발견 된 복음의 가르침 위에 있다.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루터의 사상도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지식인층은 한국에 대세를 이루는 종교가 없었다는 점과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활동, 성경의 가르침과 연결되는 애국사상 고취, 서구 문물의 위력을 깨달음 등으로의 이유로 개신교를 수용하였으며, 하층민들은 만민 평등을 위한 계급타파의 근거로서, 생존보호의 수단으로서 개신교를 수용하였다. 한국 초기 개신교의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었다. 개신교는 후에 메시아 사상과 유일신 사상, 우상숭배 금지 등 독립운동에 있어서 사상의 근간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 초기 개신교에는 성경을 중시하는 성경 중심의 복음주의와 이를 찬송으로서 보다 널리 보급시키려 했던 루터의 사상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대중 찬송이 한국에 보급되면서 본격적인 합창이란 개념이 한국에 소개되었고, 또한 노래의 메시지 전달 능력과 전파력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초기 개신교의 찬송은 가사의 내용이 확실하고 내용의 전달이 분명하다는 점, 모든 이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비교적 쉽고 단순한

8)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제 7조

곡조라는 점,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 억눌린 정서를 표출함과 동시에 노래에서 의도된 감정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항 운동에서의 투쟁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항일운동에서는 독립가요로서 항일정신을 고취시키고 단합을 유도하기 위한 노래로서 나타났으며, 계몽운동에서는 투쟁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비참한 노동계층의 현실, 인권수호 등의 사상과 정서가 분명히 전달되는 가사로서 여러 투쟁 운동의 선봉에서 활약하게 된다.

루터는 말한다. 그는 면죄부와 모든 교황 주의자들을 반대하였으나 결코 무력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썼을 뿐, 그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루터는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말했다. “나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말씀이다 했다.”

루터의 사상적, 음악적 토대는 개신교 및 전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한국에 유입 되면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사상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독립 운동과 계몽운동, 민주화운동 등에 투쟁가라는 형태로 저항 운동에 있어서 중점적인 역할을 함으로 인해 나라를 발전시키고 민중들의 권리를 되찾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루터는 한국의 개혁적인 면모에 큰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와 앞으로의 한국의 개혁에 사상적인 면과 합창과 노래라는 수단으로서 꾸준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초창기 선교할 당시 우리 나라는 종교가 제 역할을 모두 수행치 못하고 있던 실정이었다. 불교는 유교에 밀려 깊은 산 속에 있었고 대다수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원시적인 민속신앙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태도는 기독교가 애국적이며 충군적 이라는데 인식을 갖게 되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와 더불어 애국적인 인식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한편 청일전쟁을 겪으면서 서양 문물에 대한 눈이 트이게 되었고, 서양 문물은 곧 기독교로 인식이 되었다. 그리고 기독교는 개화와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식이 되었다. 일반 개화와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식이 되었다. 일반 백성들은 자유와 생존의 보호 수단으로 기독교를 수용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이가 평등하다는 사상은 백성들에게 신분제도를 실질적으로 타파하게 하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여 주었으며, 사회가 혼란스러운 때에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독교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려는 움직임이 많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독교는 구한말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용자 층이 기독교를 주로 비종교적인 이유로 받아들인 것과는 반대로 초기 우리 나라의 기독교의 성격, 특히 개신교의 성격은 순수한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으며 매우 보수적이고, 근본주의 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우리 나라 초기 개신교는 미국의 장로교의 영향을 가장 처음 받았는데, 그 성격은 청교도적이고, 성경(복음)을 최우선으로 중요시하는 성향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보수주의와 연결되며, 결국 루터가 주창한 복음주의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한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성경에 의거하여 그에 맞지 않거나 성경을 왜곡하여 해석할 경우에 윤리에 반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모든 가치판단의 중심은 성경이었다. 이러한 성격은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기독교에서 나타났으며 이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 초기 기독교는 금연, 금주, 아편 금지를 내세웠으며, 철저한 청교도적 생활을 강조하였다. 이는 결국 우리 나라 백성의 생활의 향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국권이 상실되고 나자, 기독교는 한국인들의 독립정신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쳤는데, 기독교의 메시아사상이 그 중 하나였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조선을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존재이며, 조선을 독립국으로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일반 민중들에게도 널리 퍼져 거의 미신에 가까울 정도의 믿음이 되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이 평등하다는 사상은 민권의식 확립에 바탕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갑오개혁 이후 형식적으로만 존재했던 계급타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은 하나님 이외의 신을 부정하고, 우상숭배를 금지함으로써 일제하에서 신사참배 의식을 거부하는 근거로서 작용하게 되어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

루터는 성경을 매우 중시했고, 오직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접하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는 이것을 모국어로, 말씀을 빠르고 제대로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중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을 작곡, 작사, 편곡했으며,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쁜 선물이라 생각했다.

한국의 초기 기독교는 엄격한 보수주의적인 종교적 성격을 띠었다. 이는 루터의 복음주의가 거의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성경을 가장 중시하고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며, 이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이는 1926년에 오천명이 번역한 W. C. Clark 이 지은 '우리의 신앙' 이라는 책에도 잘 나타나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성신의 묵시인줄 믿게 하는 몇 가지 근거를 말하려 하노라. 여러 곡과 각 시대에 위대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성경은 곧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신을 감동 시켜서 서술한 것으로.....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신행의 오직

하나 되는 정당한 법도인 것을 가르친 것이니라”⁹⁾

또한 위에서 언급한 기독교의 영향중, 독립 정신에 큰 영향을 미친 것 중 하나가 메시아 사상이라고 한 바 있다. 메시아 사상은 구한말의 기독교인들에게 강력한 독립운동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는데, 이때 기독교 학교에서 주로 불리워졌던 찬송가들이 있다. ‘주의 군대여! 앞으로 나가자’, ‘다 깨라 주의 군대여’, ‘십자가 군병들아’ 같은 찬송가들이 바로 그것으로 이런 찬송가들은 학생들이 함께 부름으로서 독립정신을 학생들에게 심어줌과 동시에 그 정신을 고취시키는 기제로서 사용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루터의 음악적 사상이 그대로 한국의 초기 기독교에도 스며들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은 개신교 및 전 기독교로 퍼져나갔으며, 이러한 사상을 가진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인해, 우리나라에도 루터의 사상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적 상황과 성경의 말씀과 윤리는 결합되어 여러 가지 독립운동과 저항운동을 낳았으며, 찬송의 보급으로 인해 서양적인 합창의 개념이 도입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노래가 가진 가사의 메시지 전달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과 이것을 이용해 여러 생각, 사상들을 전파하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고, 합창을 함으로서 가사에 담긴 의식을 고취시키고 단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는 곧 각종 저항운동에서 이용되게 되었으며, 항일운동의 독립가요, 계몽운동의 애국가, 근면가 등에 이용되었고, 해방 이후의 민주화 운동에서 노동가요, 민중가요로서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하게 되었다.

이로서 루터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저항으로서의 노래, 투쟁가는 우리나라의 독립에 일조하였고, 국민들의 생활 향상과 교육에 있어 정신적인 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개혁적인 면에 선봉을 선 것이 투쟁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각종 개혁의 운동에서도 계속되고 있으나, 투쟁가로서의 그 명맥이 점차 쇠퇴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투쟁가의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개혁의 의지와 의미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이 미래에도 계속 될 개혁에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생각한다.

9) 옛 표기는 현재 표기대로 바꿈

2. 민주주의 운동과 루터의 저항정신

삼일운동

한국은 역사 속에서 여러 저항운동을 통하여 민족정신과 얼을 고취시킨바 있다 특히 민족주의 정신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근대를 맞으면서 한국은 한차례 거대한 전쟁의 패러다임 속에 휩쓸려야 했는데, 한국 근대사 중 일제의 무력 강탈에 의한 저항은 곧, 삼일운동으로 나타났다. 민족주의의 운동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는 삼일운동은 특히 항일 독립운동사상 최대 규모의 운동이다.¹⁰⁾ 이는 전국방방곡곡에서 일어났을 뿐 아니라 만주, 러시아, 연해주와 시베리아, 미국 본토와 하와이, 일본 등 한민족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일어났으며 남녀노소, 신분과 계급, 지역과 종교의 차이를 초월하여 자주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일치 단결하여 일어난 전민족적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세계사적으로 그 당시 전쟁으로 인한 세계 피압박 민족들에게 새로운 자극과 용기를 주어 중국의 5.4운동, 인도와 이집트, 인도차이나, 필리핀의 독립운동에도 커다란 각성과 영향을 주었고 세계혁명 운동사에 새로운 기원을 열었다. 이러한 방식은 인도 간디의 진리수호운동,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민권 운동 등에서 다시 그 힘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민족주의 운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눈여겨볼 특징이 있다면 그러한 운동을 이끌었던 주체들이 종교인들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에 들어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기독교가 민족주의 운동을 이끄는 데 한 몫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종교와 사회는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이다. 그러한 관계들은 서로 상호보완 하면서 국가의 한 부분들을 구성해 나간다. 기독교는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1886년경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나 의료 선교사 에디슨 같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최근의 교회를 설립한 이후 짧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무엇보다 더 잘 정착하여 한국인의 민족정신을 이끌었다. 현재는 한국 기독교의 부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제는 이 작은 나라가 다른 나라에까지 선교사를 보낼 정도로 기독교는 발전하였다. 기독교는 서양의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보다 지극히 한국화 되어 받아들여졌다. 그러한 과정에서 시대적으로 전쟁에 대한 공포감의 안정과 독립을 향한 목마름, 강한 민족애와 맞닥뜨리지면서 기독교는 그러한 민족적 열망에 밀받침이 될만한 탈출구를 제시해야 했다. 그 속에서 루터의 개혁적인 모습과 그의 열정적인 진리에의 추구하고 변혁은 한국의 기독 민주주의자들의 가슴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그의 많은 사상들은 그들을 통하여 나라의 백성들에게 전달되게 되었다. 특히 루터가 음악의 효용성에 대해 말한 것을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루터의 개혁을 향한 그리고

10) 이원범 독립운동가 24인의 생애와 사상, 3,1운동 기념사업회 1999, pp.29-31

진리를 향한 그런 찬송가는 음과 가사가 어우러져 우리 민족의 마음을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3.1운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애국 열사 유관순은 3.1운동을 이끌면서 루터의 찬송가를 불렀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 측면의 종교적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그 찬송은 종교적인 찬양의 의미를 포함하면서 민족 해방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기도의 모습, 그리고 내적, 외적인 자유함 에의 갈망이었다. 루터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참된 자유를 추구하였다. 참된 자유란 외부의 거센 압력에도 굽혀지지 않는 내적인 곳으로부터의 참된 자유 함을 의미한다. 신이 주신 은총으로 인한 그 은총에 대한 감사함에서 비롯되는 마음깊이 나오는 찬양, 그리고 신에게 끊임없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를 사하여 달라는 간구를 하는 절대적인 기도, 그러한 기도 속에서의 신이 주신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 루터가 말하는 참된 자유 함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것이었다.

3.1 운동당시에 낭독된 기미 독립 선언서의 내용은 이러하다.

1.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의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1. 최후의 한사람까지 최우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1.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이 공약의 첫 번째 조항에는 “자유정신” 이 나온다. 3.1 운동은 이러한 자유적 정신을 이념으로 한 민족 운동이며 굴욕을 벗어난 진정한 자주, 독립의 정신으로 요약되어 진다.¹¹⁾

3.1 운동의 정신은 하나됨의 정신이요, 홀로 서기의 정신이요, 바로 서기의 정신이요, 스스로 주인 됨의 정신이고 함께 잘살기의 정신이었다. 이것은 루터가 부르짖은 정신과 상당히 유사하다. 자유적 정신으로 바로서는 것, 참된 진리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 루터의 그러한 개혁적인 생각들은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이다. 특히 기미독립선언서의 공약은 “자유는 만물의 생명이요 평화는 일생의 행복이라” 라고 주장하는 한용운 선생에 의해 쓰여져서 불교의 자유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민족적 자유에 대한 생각은 루터의 사상과 거의 일치한다.

기독교나 천주교 보다는 훨씬 늦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으나 루터의 정신을 계승하는 루터교인들, 즉 루터란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의 활동으로서 한국전쟁 때 70명의 미군

11) 앞의 책, 이원범 P.358

목들이 종군하였고, 기독교 세계봉사회를 통해 적극적인 구호 사업을 펼쳤다. 그 가운데서 루터의 사상들은 어려운 민족 역사 가운데서 참 자유에의 추구인 루터의 정신들이 맥을 이어 오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루터교 선교는 1958년에 미국의 미조리 시노드 루터교회에 의해 시작되었다. 루터교 선교 팀은 한국 교계를 위해 공헌하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루터교회는 세계 루터교회의 역사에 비추어 아주 늦게 시작되었다. 1932년 독일인 루터교 선교사가 서해안 원산도에 상륙한 것이 한국과 루터교와의 최초의 만남이었으며, 실제적인 선교가 시작된 것은 1958년의 일이었다. 장로교나 감리교보다 74년이나 늦게서야 본격적인 선교 활동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길지 않은 연륜 속에서 한국의 루터교회는 베델성서 연구, 루터란 아워 방송, 기독교 통신강좌, 컨콜디아 출판 사업, 루터신학대학교 설립을 통한 일꾼양성 등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의 전체 교회를 섬기는 교단으로서 사명을 다하며 자라 가고 있다.

한국의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는 칼 귀츨라프(Karl Friedrich August Gutzlaff, 1803-1851) 목사이다. 1832년은 독일인 루터교 선교사 칼 귀츨라프 목사가 한반도를 찾아온 해이다.

중국에 온 첫 번째 루터교 선교사로 알려진 귀츨라프 목사는 순조(1800~34년)당시인 1832년 7월 17일에 한반도 서부에 들어서 1개월 동안 중국어로 된 기독교 전도지를 돌렸다. 또한 그곳 어부들에게 중국 문으로 된 쪽 복음서와 큰 단추 몇 개를 주면서 필담으로 그들과 대화를 시도했다. 이 일은 바로 개신교 선교사로는 맨 처음으로 조선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음이 틀림없다.

어학에 재능을 가진 귀츨라프 목사는 주기도문을 한문으로 쓴 다음 그 위에 한글로 토를 달게 하면서 번역하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한글 성서 번역의 최초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일들은 한국에서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로버트 토마스 목사)가 생기기 34년 전 일이며, 알렌 의사의 도착(1884년)과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한반도를 찾기(1885년) 50여 년 전 일이다. 비록 그의 한반도 체재기간은 짧았으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매우 뜻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귀츨라프 목사가 한국에 기여한 업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귀츨라프는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목사이 선교사라는 점
- 둘째, 체제 기간동안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와 증거에 노력을 경주하였다는 점
- 셋째, 성서를 한글로 옮기는 일에 착수했다는 점
- 넷째, 순박한 어민촌과 빈민 대중에게 친절히 접근하여 개신교의 복음을 증거하고 감자 재배법 같은 것까지를 가르쳤다는 점

다섯째, 그 당시 한반도의 사정(일부분)을 정밀히 관찰하고 비교적 정확한 상황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점

그후 루터파 선교사 귀츨라프 목사가 다녀간 126년 후에 비로소 역시 미국 계통의 한 루터교단에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은 귀츨라프 선교사가 남기고간 작은 열매인 것이었다.

루터교들은 매우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공동체들은 일치를 보인다. 한국교회는 찬송가가 없었으나 감리교에서 찬미가를 1892년에 발간했다. 루터의 찬송곡은 1895년 장로교회의 공인 찬송가로 출간된 “찬성시”에서 “못폐할 성은 하나님”, 즉 “내주는 강한 성이요”(Ein feste Burg ist unser Gott)가 루터의 독일찬송에서 번역되어 수록 되었다.

루터의 예배음악관은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회중 중심의 예배음악을 발전시켰다.

둘째, 다양한 회중 찬송의 장르를 받아들였다.

셋째, 예배에 다양한 악기사용을 권장했다.

넷째, 예배음악을 중요시하였다

다섯째, 예배음악을 통해 복음선교의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삼일운동은 민족주의 운동으로서 루터의 저항정신과 일맥상통한다. 1961년에 세워진 독일의 베를린장벽은 하나였던 독일 기독교 마저 갈라놓았다. 그러나 루터의 저항정신이 1989년 평화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는 정부 반대세력의 피난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운동가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한 것이 기독교회가 아니라 저항 의식을 가진 몇몇 용감한 신자, 목사, 교회공동체였다. 이들의 저항이유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양심과 루터 식 저항에 뿌리박고 있는 기독교 정신 때문이었다. 평화 혁명은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신교혁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공산정권의 몰락은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평화의 기도』는 1980년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삼일운동과 비슷한 민족주의 운동이었다. 이 교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5시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개최하면서 평화 문제 외에도 인권, 이주권, 여성의 동등권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평화의 기도를 마치고 라이프치히 중심부에서 기독교인들과 재야 인사들이 모여 행한 평화시위는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한국의 삼일운동은 루터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이 틀림없는데, 비단 민족주의 운동으로서만 조명할 것이 아니라 평화운동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삼일운동의 유관순은 독립운동가로서 1902년-1920년까지 생존했던 인물로 본관은 고흥

이며 충청남도 천안 출신이다. 아버지는 중권 어머니는 이씨이며 5남매 중 둘째 딸이다. 유관순은 공주의 영명학교에 입학하여 2년 간 공부하다가, 14살 때 충청도 교구의 사부인이었던 여 선교사 샤프(Alice Hammond Sharp)의 눈에 띄어 서울 이화학당에 보통과 3년으로 입학하였다. 이화에는 관순의 사촌 언니 예다가 먼저 다니고 있었다. 유관순은 기독교 계통의 여성교육기관인 이화학당에서 신식의 학문을 배웠다. 그녀는 학당시절에 학당에서 가까운 정동감리 교회에 다니며 매일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눈물을 뿌리며 기도 했다고 한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유관순은 이화학당의 학생으로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그 뒤 일제가 이화학당을 휴교시키자 고향으로 돌아와 교회와 천신학교를 찾아다니며 서울에서의 독립 시위운동 상황을 설명하고, 이곳에서도 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을 권유하였다. 조인원, 김구용 등의 마을 지도자를 규합하여 연기, 청주, 진천 등지의 교회와 유림계를 규합, 이해 음력 3월1일 아오내 장날을 기하며 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을 추진하였다. 이날 수천 명의 군중을 모아 독립만세를 선창하며 격렬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시위 전개에서 잔인한 일본헌병의 총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피살당하고 자신은 아오내 만세시위 주동자로 잡혀 일제의 무자비한 고문을 받았으나 끝내 굴하지 않았다.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언도 받았으나 이에 불복, 항소하여 경성복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일제의 한국침략을 규탄, 항의하고, 일제법률에 의하여 일제 법관에게 재판 받음이 부당함을 역설하다가 법정모욕죄까지 가산되어 징역 7년형을 언도 받았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 중에도 틈만 있으면 독립만세를 고창하였고, 그때마다 형무관에게 끌려가 모진 악형을 받았다. 불굴의 투혼으로 계속 옥중항쟁을 전개하다가 1920년 17세의 나이로 끝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하였다.

유관순이 참살된 지 이틀 뒤에 이 소식을 들은 이화 학당 교장 푸라이와 월터선생은 형무소 당국에 유관순의 시체를 요구하였으나 일제는 이를 거부하였다. 유관순의 학살을 국제여론에 호소하겠다고 위협하고 강력하게 항의하자 일제는 할 수 없이 시체를 인도하였다. 시체를 인수한 이들이 석유 상자에 든 유관순의 시체를 열어보니 토막으로 참살된 비참한 모습이었다. 유관순이 만세운동을 벌일 때 불렀던 찬송은 루터가 쓴 곡이었다. 독일인에 의한 독일적 회중찬송을 불렀음을 말한다

3. 루터의 개혁과 동학농민 운동

동학농민혁명 제2봉기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표출된 동학남북접 갈등을 16세기 독일 농민전쟁기(1523-25)에 발생한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와 토마스 뮌처(Thomas Müntzer, 1490-1525)를 대표로 하는 두 종교지도자 사이의 충돌과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중세봉건체제는 카톨릭 종교체제와 함수관계를 이루며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동학의 발생 경우처럼, 단순한 종교적 원인만이 아니라 정치경제동 사회사적 제반요소가 맞물려있는 일이어서, 종교개혁은 근대서구 시민사회의 출현의 진원운동이 된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과정속에서 미시적으로 보면, 해월과 전봉준의 시국판단이나 종교적 행동방식에서 무력사용의 견해차이처럼 루터와 뮌처사이에 갈등 및 충돌이 있었다. 전봉준이 동학도이며 해월을 존경했지만 해월과의 견해차이를 보였듯이, 토마스 뮌처도 루터의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받고 루터를 존경한 개혁 성직자였지만, 농민혁명에서 무력봉기를 지지하고 앞장섬으로서 루터와 첨예한 대립을 겪었다.

루터가 독일 농민 군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가했을 때, 그의 동기는 동학 북접 지도층이 혁명초기에 가졌던 명분과 대동소이하였다. 루터 또한 농민혁명 초기엔 농민들의 정당한 불만에 동정을 했지만, 해월이 동학도가 폭력에 휩쓸리는 것을 반대했듯이, 마틴 루터도 1525년 “살육과 약탈을 일삼는 농민무리에 대항하여” 라는 제목의 거칠고 독설 적인 비판의 글을 썼다. 그리스도교도는 폭도로 무리를 지을 만큼 그 수가 많지 않다”고 말했으며, 근본적으로 마틴 루터의 종교사상은 세상의 정치 경제 문제를 다스리라고 신이 세운 제후들의 정치 왕국과 영혼의 구제와 훈련을 감당하라고 신이 위임과 영적 종교적 왕국과의 혼동을 반대하는 ‘두 왕국 설’ 정치신학이론을 가진 개혁자였다. 따라서 그 자신이 웨스 제국 회의에서 인간의 영혼과 신앙양심에 대하여 그렇게도 영웅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폭력적 혁명수단에 의해 사회를 급진적으로 개혁하는 일에는 반대한 종교 개혁가였다. 토마스 뮌처를 비롯한 보다 급진적 개혁종교가들을 ‘종교개혁을 개혁하는 개혁자들’ 또는 ‘종교개혁좌파’ 라고 부른다. 종교개혁운동을 통해 근세 주체적 개인의 신앙자유, 양심자유, 봉건 영주나 교황권의 횡포에 대하여 저항하는 용기가 동시대 사람에게 전파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농민계층 삶은 여전히 절대빈곤, 과중한 세금, 무지, 신분적 억압 체계 속에서 귀족들과 사회상부계층들의 ‘밥’ 이었다. 마침내, 농민들은 종교개혁정신에 고무되고, 농민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무장봉기를 하고 일어나 혁명운동을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마치 동학농민군이 ‘강령주문’을 주송하고 종교적 열정과 민중봉기의 열정을 융합시킨 것처럼, 독일 농민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신앙적 경향성은 종교개혁 신앙 유형 중에서도 ‘성

령의 직접 임재 체험`을 상조하는 `재 세례파` 영향아래 있었다.

1524-25년 동학농민들은 슈바르츠발트, 알슈테트, 슈바벤, 튀링겐 등지에서 봉기하였으며, 짧은 기간동안 이나마 마치 동학의 집강소 설치, 폐정개혁안의 실천 등과 같이 정부의 회를 전복시키고 1523년 `영원한 의회` 곧 농민자치 민회를 설치하기도 했고, 동학의 폐정 개혁안처럼 `12개조 요구`를 주장했다. 뮌처는 사회적 개혁 없이는, 그리고 사회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무력사용을 동반한 혁명적 방법 없이 종교개혁의 신앙원리 만을 가지고서는 농민들의 비참한 삶을 개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검을 들어 하나님나라를 앞당기려는 거사는 신의 뜻이요 정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농민혁명기간동안 토마스 뮌처는 주도적 인물이 되었으나, 1525년 5월 독일 프랑켄 하우스엔 전투에서 제후 귀족들 군대의 막강한 반격을 받아 동학농민혁명군처럼 패배하고 전봉준처럼 뮐하우센 병영에서 필립 영주(Philip of Hesse) 권력아래서 재판 받고 처형되었다.¹²⁾

지금까지 위에서 루터와 뮌처의 갈등을 북접지도부와 남접지도부의 갈등원인과 비교해 보았지만, 우리의 관심은 그 비교연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접지도부의 입장은 개인 해월이나 두령들의 견해라기보다는 종교가 인간 사회적 삶의 모순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변혁이나 개혁의 방법 중에서, 얼마만큼 폭력적 방법, 무력 항쟁적 방법, 혁명적 수단을 용납할 것인가의 영구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남북접 삼례회의가 갑오년 9월 중순에 열릴 것이 아니라 갑오년 3-4월에 동학의 남북접 지도부의 앞을 내다보는 상황전개 예측능력으로 앞당겨 열려서, 동학농민군의 총체적 봉기에 일심합의하여 관병이나 외국군대의 개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동학농민혁명의 결과나 한국사는 전혀 새로운 전개를 겪었으리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4. 루터의 Lieder

루터가 성서번역 다음에 찬송가집 편찬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은 그가 교회에서 얼마나 음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루터는 그의 저서를 통해 음악이 가지는 힘에 대해서 역설했으며 훗날 많은 사람들로부터 플라톤 이후 음악을 가장 사랑한 사상가로 평가받게 되었다.

12) 브리태니카 엔사이클로페디아 (한글판), 마틴 루터 항목 참조.
윌리엄 스코트, 심래상역, 개신교 신학사상사, 대한 기독교 서회 1988 Pp. 82-99

독일 국민을 세계 제일의 노래하는 민족으로 키우는 계기가 곧 루터의 개창운동과 소년 합창단(성가대)제도였다. 이러한 코랄은 단순한 구성이지만 그 선율진행에 있어서 심각한 독일민족의 신앙과 고뇌, 환희 그리고 평화가 표현되어 있으므로 많은 예술의 원천이 되었다. Luther 의 Lieeder 즉, choral 은 '참된 영적 자유를 얻는다' 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루터의 음악은 그의 그러한 자유에 대한 견해가 삽입되어있다.

둘째, 루터의 음악은 민족음악으로서의 독일음악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었다.

루터는 사회와 국가의 번영에 이바지하는 교육적 사명을 높이 평가하였고, 사회란 모든 시민들의 재능을 최대한 실현 시켰을 때 더 큰 안정성을 얻게 되고 법에 의해 통치되어지며 더욱 신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셋째, 음악을 통하여 종교적인 능력과 감성적인 능력이 계발 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보다 온전하고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플라톤과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넷째, 루터의 음악적 견해는 우리나라 개화기의 근대화 과정을 볼 때 유사한 점이 많으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프란츠 에케르트라는 인물은 독일음악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가교역할을 한 인물로서 독일 해군 군악대장으로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를 작곡하기도 했다. 한국정부로부터 군악대 창설과 그 지도를 위한 초청을 받고 3년 기한의 계약을 수락하여 군악대를 이끌었다. 그리고 그는 대한제국의 국가를 작곡하기도 했다. 대한제국 애국가 가사를 보면 상제(옥황상제)난 우리 황제를 도으소서/성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산짓치 사으소서/ 위권이 환영에 떨치샤 오천만세에 복록이 무궁케 하쇼셔/상대는 우리황대를 도으소서~와 같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음악 작품이었지만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 결과 탄생 된지 5년만에 군대가 해산되고 이에 연주자들을 잃게 되어 종국에는 한일합병으로 '잃어버린 국가'가 되고 말았고 대한제국의 운명과 함께 하고만 비운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는 공교롭게도 첫째,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로서 대한제국을 주제로 한 작품이 서양음악가인 독일인에 의해서 작곡이 되었고, 그의 태생적·사상적 배경으로 볼 때 루터가 가지고 있던 민족음악으로 까지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재미있는 사실은 둘째, 사설음악교육기관의 역할을 했던 학교들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개신교 계통이었고, 우리나라에 소개된 최초의 음악(양악) 또한 코랄(Choral)을 위시한 찬송가였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를 설립한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와 같은 선교사들의 사상적 배경에 루터의 음악적 견해가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 당

시 셋째,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대한 필요성 따라 행해진 인성교육에 있어서도 그 음악들의 역할에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루터교 주일 공동 예배순서

1998년도의 성령강림후 스무번째 주일에 열렸던 루터교의 주일 공동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다.

주일공동예배

성령강림 후 스무째 주일

오전 11시

반주:000

인도:000목사

촛불점화:000

입장찬송: (53장)-일어서서

이때 예배드리는 회중들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촛불 점화자와 사회자(목사), 성경봉독자(구약과 사도서간, 장로)성가대는 교회의 중앙통로로 입장한다.

사회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며 회중을 인도한다. 이대 모든 교인들은 세례를 기억하며 + 표시를 하면 좋다

※말씀과 함께 드리는 예배※

시편교독(12번) - 다 같이

★ 예배 의식문 89면에 있는 `죄의 고백과 용서`에 관한 것을 사회자의 회중이 교독한다. 그리고 사회자가 사죄의 선언을 한다. 이때 성호[+]를 긋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하며 이것은 아주 오랜 전통과 역사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십자가 표시 방법은 오른손 바닥을 편편하게 펴고 모든 손가락을 모은 채로, 손가락 끝을 앞이마, 가슴, 오른편 어깨, 왼편 어깨의 순서대로 연달아 갖다 대면됩니다. 성호를 긋는 행위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적합한 신앙 고백적인 행위라고 믿는다.

★기도송: 자비를 구하는 기도(Kyrie)의 한역이다.

예배 의식문 10-11면

★영광송(GLORIA IN EXCELSIS)

예배 의식문 12-13면

★인사

사회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사회자: 다같이 기도 드립니다...

회중: 아멘

이때 구약과 사도서간봉독을 하러 나온 장로가 교회력에 따라 기도한다.

구약 봉독(합1:1-3,2:1-4)-000장로

사도서간봉독(딤후1:3-14)-000장로

찬송(316)- 다 같이

복음서 봉독(눅17:1-10)-일 어서 서

복음서를 봉독하기 전에 회중들은 일어서서 찬양한다.

예식문14면

복음서 봉독한 후 사회자가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면 회중은 “주께 찬양 드리세”를 찬양한다

예식문15면

신앙 고백(사도신조)-다 같이(일어서서)

★사도신조를 주로 사용하며 니케아 신조는 대림절, 사순절, 부활절기, 또는 축제일에 사용한다. 세례식이나 다른 의식이 있을때는 생략한다.

특별찬양-말씀의 완성자(k.Stephenson)-성가대

말씀(“도리어 복을 빌라”)-000 목사

(벧전3:8-12)

봉헌(감사와 기쁨으로)-다 같이

★봉헌영가(OFFERTORY)(헌금을 제단에 드리며)

예식문 17-18면

목회 기도(전교회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인도자

★이때 봉헌기도와 교회의 성도와 혹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등과 각 기관을 위해서 기도한다.

성만 찬(경건과 확신으로)-다 같이

★인도자가 “모두 일어서서 의식문18면을 펴시기 바랍니다” 하면 회중들은 다음과 같이 교독한다.

사회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자: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회중: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사회자: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회중: 이것이 마땅하고 유익하나이다.

사회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그리고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절기에 맞는 서문을 계속하며 성령강림절 후 주일들에는 서문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노래하기를.....

★삼성창 (거룩 거룩 거룩 ,SANCTUS)

예식문 20-21면

★성찬기도와 제정의 말씀

사회자가 회중을 바라보면서 성찬 축사를 한다.(예식문22면)

★주 기도(다같이)

주기도를 한 후에

사회자: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양 (AGNUS DEI)

주기도 후에는 회중들은 같이 “하나님의 어린양 (AGNUS DEI)을 부른다. 이때 성찬 분배가 이루어진다.

예식문23면

★성찬분배

사회자: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몸이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피라.

회 중: 아멘

★시므온의 노래 (NUNC DIMITTIS)

예식문 25면

사회자: 주님은 선하시니 그에게 감사드리세.

회 중: 그의 사랑이 영원하시 도다.

★기도 (예식문 26면)

축도(일어나서)-인도자

루터는 민수기 6장24-27절의 아론의 축복기도를 사용할 것을 권면 했다.

축도 후 다음과 같이 회중은 세 번 아멘 아멘 아멘으로 응답한다.

한편 현재 전국 루터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국 루터교 교회 현황

교회명	주소	전화
도봉교회	서울도봉구방학1동681-18	(02)3492-8860
왕십리교회	서울성동구도선동201-1	(02)297-5830
중앙교회	서울용산구후암동446-11	(02)752-7629
옥수동교회	서울성동구옥수동547-30	(02)297-9504
대조동교회	서울은평구대조동49-2	(02)335-4098
남부교회	서울동작구대방동17-27	(02)823-0691
부산제일교회	부산시남구광안동1036-3	(051)753-0378
부산신일교회	부산시진구개금1동540-87	(051)893-5950
방배동교회	서울서초구방배2동977-18	(02)583-6170
천안교회	충남천안시성정동700-7	(0417)575-2021
대전제일교회	대전시서구괴정동91-8	(042)531-6608
벤엘교회	대구시북구북현2동361-33	(053)624-4347
구월교회	인천시남동구구월1동1218-2	(032)468-0193
동대전교회	대전시동구용정동124-9	(042)622-0686

반석교회	대전시달서구송현2동1913-8	(053)624-4347
청주교회	충북청주시봉명동206-2	(0431)63-5793
섬나교회	전주전북시금암동1547-1	(0652)75-7913
광주교회	광주시서구화정동740-63	(062)372-5018
수원교회	경기수원시팔달구우만동506-04	(0331)44-3912
서부교회	서울양천구신월7동928-2	(02)697-1629
안산교회	경기안산시사동1414-10	(0345)409-0097
평택교회	경기평택시합정동513-1	(0333)656-0258
소망교회	대전시대덕구덕암동8-5	(042)932-7329
충주교회	충북충주시봉방동179-1	(0441)854-1318
은혜교회	경북경산시사동586-2	(053)814-1267
탄현소망	교회경기고양시일산구탄현동1493-3	(0344)913-0274
팔복교회	경기용인시기흥읍상갈리17	(0331)283-0619
온양교회	충남아산시용화동846	(0418)548-0722
국제교회	서울용산구한남동726-39	(02)794-6274

III. 結 論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적 조직체이기 때문에 정체된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없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성장하기를 바랄 뿐이다. 때문에 교회는 항상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새롭게 스스로를 개혁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 교회가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어떠한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지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성도가 성화의 과정을 밟아 가면서 날마다 새로움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모든 교회는 말씀의 빛에 비추어 날마다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한다. 교회의 개혁은 어느 특정한 시대에 국한된 일일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직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이었다. 루터는 교회를 전복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개혁하고자 했다.

한국의 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개혁의 의지와 욕구가 끝까지 차 올라 있다. 모든 정당은 개혁정당임을 내세우고 있고, 보수는 오히려 반동

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그만큼 이 시대의 한국과 교회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이다. 역사의 흐름은 종교의 부패가 사회의 부패를 함께 가져오는 동반자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들은, 특히 루터에게 있어서, 모든 교회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복음적 원리들이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한국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며 아직도 그의 개혁적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루터교와 루터는 그렇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민족주의 정신과 루터의 저항정신은 한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삼일운동으로 이어졌다.

둘째, 루터의 개혁은 동학 농민운동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루터의 리더는 저항정신의 표상이었으며 아직도 영원한 개혁 불길의 그루터기가 되고 있다.

루터 교단이 한국에 미친 영향은 실로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루터 교단 출신의 귀츨라프 선교사에 의해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은 한국 기독교사에 있어서 아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구교 합하여 1500만이나 되는 크리스찬 가운데서 루터 교단이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한국의 거대한 기독교 교단들과 전통 종교들 사이에서도 “힘찬 교회”로서 보조를 함께 하고 있는 것도 기정사실이다. 또한 루터 교단은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후손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개신교의 ‘장형(長兄)’으로서 긍지를 유지하며 그와 같은 위치에 어울리는 처신을 하려고 힘쓰고 있다. 이 사실은 1958년 새로 설립된 KIM(한국 루터교 선교부)이 기본 강령을 마련할 때에 이미 신학적인 면에서 분별 없는 것을 하지 않으며 또한, “양을 훔쳐오는” 일에도 간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실에서 입증되 된다. 이것은 오늘까지도 일관된 한국 루터 교회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적 밝히기다.